

**세상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역자와 성도들의 기준·수준·표준 II**
- 복음으로 여는 디모데전서 -
삼상3:8-9, 딤후4:6-11

정윤돈 목사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역자와 성도들의 기준·수준·표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비록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한다. 사무엘과 디모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상과 교회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을 받았다. 특히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따라 어린나이에 성전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엘리 제사장은 참 문제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제가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다. 사람 중에 어떤 사건 때문에 상처 받아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이다. 첫째로는 ‘거짓말 하는구나’, 둘째로는 ‘복음,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한다. 제 마음속에는 ‘평계거리를 저렇게 대는구나’라고 생각한다. 성도, 중직자, 램네티들이 교회 일어나는 일에 평계대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 붙잡으시길 바란다. “나 혼자 살아있으면 이 세상 다 바랄 수 있어. 나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 이 정도 믿음 가지시라. 사무엘 믿음이 이 정도였다. 동기, 욕심 많은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것 같다고 인정했다. 불신자도 인정할 만큼 여러분이 영적서머티 되시길 바란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저주, 재앙이 온 것이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복음 가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복음 가진 시대가 별로 없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다. 오히려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또 디모데는 사도바울의 제자이다. 바울의 1차 구금이 AD 62년경 이라고 보는데, 에베소로 온 것이 AD 63년경이다. 그 후로 에베소에 디모데를 놔두고 바울은 마케도냐로 갔다. 뭔가 시원찮아서 편지를 보낸 게 디모데전서이다. 그 당시 에베소는 많은 우상 신전, 율법주의, 타락, 교만, 물질만능주의, 이단(다른 교훈), 세상지식과 세상축복만 추구하는 자가 너무 많았다. 딤후6:10에 나온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 현장에 디모데를 두고 왔다. 바울이 디모데가 걱정 되니, 방향을 알려주려고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이다. 여러분 모두 사무엘과 디모데처럼 어려운 이 시대와 세상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성도님들과 램네티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화장지와 식료품을 사재기를 한다고 한다. 미국, 일본, 호주, 유럽 모두 다 슈퍼마켓이 텅텅 비어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재기를 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한다. 지금 학교수업도 싸이버로 진행하고 있다. 음성만 듣는 곳도 있고, 영상으로 듣는 곳도 있다. 강의를 다 스마트폰으로 듣고 있다. 이게 한국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것이다. 복음 있으면 포로, 노예, 속국 되어도 기회가 된다. 성도님들 중에 단 몇 명만 깨달아도 된다. 초대교회에 소수가 있었는데 몇 백 년 후에 로마를 정복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금 한국도 코로나19 확산이 안전한 상황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 더 크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더 조심하고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세계를 치유하는 확실한 모델을 제시 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때이다. 우리교회 성도분들도 이 재앙과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디모데전서의 내용의 95%정도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다. 문제도 많지만, 복음, 교회, 예배당 다 확실하다. 근데 왜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가? 영적 지도자가 못먹고 자질이 안 된다. 욕심이 너무 많다. 말씀이라는 기준 수준 표준대로 안 된다. 부동산 투기 가장 많이 하는 게 기독교인이다. 증거가 뭐냐? 전국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곳이 서울이고, 서울 중에서는 강남이다. 강남에 부동산 투기가 가장 많다. 왜 그러냐? 50-60년대에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살았다. 목사님 입장에서 성도님들이 가난하니 복 받았으면 좋겠어서 “복, 복”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제는 질적인 것을 만들어야한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내가 경제적인거 좀 놓치면 굶어죽는 시대의 목회자이니 돈에 대한 관심이 많고 욕심도 많다. 우리 애들은 돈 주면 지갑에 안 넣어서 돈이 굴러다닌다. 교회에서 암송대회 하자 해도 상금이 적으면 전혀 동기유발이 안 된다. 그러나 과거에는 어려웠다. 근검절약하고, 돈을 아끼는 것이다. 그런

배경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우리처럼 ‘먹방(먹는방송)’ 많이 하는 나라가 없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재정비하고 도전하는 시간표인 것 같다. 그런 시간표에서 오늘 디모데전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세지이다. 즉, 디모데전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지침이 될 영적인 것과 삶에 대한 기준, 수준, 표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에베소교회에는 우상, 이단, 음란, 지식, 교리, 율법주의, 유대주의 등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그런데 왜 사도바울은 많은 제자 중에 디모데를 에베소교회에 남겨두었을까? 그 이유는 디모데가 에베소 현장에 가장 적합한 사역자였기 때문이다. 사도바울은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에 따라 에베소교회의 사역을 디모데에게 맡겼던 것이다. 사도바울이 그냥 결정한 것이 아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선택했을 것이다. 사도바울은 질문했을 것이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이다. “디모데를 보내라.”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의 가정, 직장에 문제가 있나? 그때 말씀 붙잡으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 그런 배경으로 디모데전서가 나왔다. 그래서 에베소교회가 살아났다.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해서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 드린다. 많은 분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말을 툭툭 한다. 단 1분도 기도하지 않았구나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 쉽게 말하거나 결정하지 마라. 1초라도 질문하라.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집중해서 묵상하면 미래를 앞당기는 응답을 받는다. 나중에 보면 ‘이야, 그때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잘했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구나’ 이런 사람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 근데 이런 시간을 단 1초도 안 갖는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시길 바란다. 사도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세상과 교회를 살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기준, 수준, 표준을 알려 주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전서이다. 이 말씀대로 따른다면 교회와 세상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디모데를 거기에 세워놓고 끝났다? 24시간 계속 기도하면서 사도바울은 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계속 그 생각을 했다. 교역자, 감독에게 줄 메세지가 쪽 나왔고, 성도에게 줄 메세지가 쪽 나왔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가 정리된 것 아닌가? 그걸 편지로 보냈다. 여러분도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깊은 기도 하다가 많은 응답 받으시길 기도한다.

1. 사도바울이 교회의 교역자와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교역자들과 전도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였다. 나라를 빼앗은 황제 아니었나? 요새 너무 이념적인 정치적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다. 그들은 정말 나라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진실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사랑하게 하고, 지도자를 사랑하며 기도한다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든다. 그저 대적하고 비난한다. 나에게 맞는 이야기라면 어떤 거짓말도 끌어서 쓰고,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함부로 끌어쓴다. 사기꾼도 그렇게는 안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한다. 그 이유는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딤후2:1-2절을 보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배후에서 흑암 꺾는 기도를 하라. 그렇지 않아도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을 텐데 우리가 저주해서 되겠는가? 성경 속 인물들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지도자를 비난하지 않고 살렸다. 우리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한다.

2) 사도바울은 감독의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감독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총회장,노회장,임원)들과 목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감리교는 지금도 감독제도가 있다. 교회에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처럼 총회에서 파송한다. 스코트랜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장로가 권한을 받았는데, 영국에서는 감독제도로 간 것이다. 딤후3:2-7에서는 교역자의 13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다. 물론 사람이 책망 받을 것이 없도록 되는데 쉽지는 않다. 그러나 아래에 13가지에서 걸리는 것이 없어야겠다. 완벽한 인간은 없겠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있다. 그리고 목표는 있어야하지 않는가? 딤후3:2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아래의 13가지 내용에 문제가 없어야한다) (1)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결혼과 가정) (2)절제하며(경제, 언어, 삶 등) (3)신중하며(결정할 때, 조급하거나 경솔하지 않아야 한다.) (4)단정하며(명품×, 근검, 깔끔한 외모) (5)나그네를 대접하며(구제와 사랑, 복지, 다민족의 마인드) (6)가르치기를 잘하며(말씀, 복음) 딤후3:3 (7)술을 즐기지 아니하며(중독) (8)구타하지(폭력성) 아니하며 (9)오직 관용하며(포용과 사랑) (10)다투지 아니하며 (11)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물욕×) / 딤후3:4 (12)“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 딤후3:7

“또한 (13)외인(불신자 가족, 친구, 이웃 등)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신천지, 비난 받는 기독교인들)에 빠질까 염려(조심)하라”

우리의 기준은 전도이다. 술을 완전히 끊는게 전도에 유익하다면 끊을 수도 있어야한다. 세상에 비방 받는 일이 생기면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올무에 빠졌다. 기본이 안 갖춰져 있어서 그렇다. 복음이 완전 제철되던 되어지게 돼 있다.

3) 신천지와 같은 거짓말하는 이단들에서 성도들을 지켜 줄 수 있어야 한다. 딤편4:1~2절의 말씀을 보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신천지인들)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이만희와 지도자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단에게는 얼마나 많이 따르는지 모르겠다. 몇 십만 명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안 따른다. 왜 그런가? 미혹의 영이다. 귀신이 역사해서 그렇다. 이단 본인들은 거짓말 하는 줄 아는데, 양심이 없어서 남을 속인다.

4) 영적인 리더자들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딤편4:7~8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들이 하는 62가지 전도자의 삶과 237훈령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자신을 연단하는 것이다. 이 훈령들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음을 믿고 도전하시기 바란다.

5) 영적인 지도자들은 먼저 무시당할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역자들이 나이가 어리더라고 겸손하게 대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전도사가 20살에 신학교 가면 20살에 전도사 될 수 있다. 근데 막 반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 소대장 임관하면 빠르면 22~23살 일 수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어린 교역자도 마찬가지로 지이다.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도사 임장에서 ‘내가 전도사니까 대접 받아야지’ 라고 해서 안 된다 교역자는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너무 심하게 하면 중직자가 존중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그러나 교역자가 그렇다 하더라도 중직자는, 교역자가 성장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주는 모습이 돼야한다. 그게 복음적인 모습 아니겠는가? 딤편4:12~16절에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면,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생각하게 해야 한다. 나이가 어려서 못하는가? 아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딤편4:15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발전, 성장이 있어야한다. 말씀 집중, 묵상 하는 것이다. 딤편4:16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왜 이렇게 하나? 생명 살리기 위해서이다. 교역자들의 모습이다.

6) 영적인 지도자들은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딤편 6장6절로 8절 말씀이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예수님은 머리 돌 곳도 없었다. 항상 부족하다 없다 느끼면 안 된다.

2. 사도바울을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을 조금만 지켜도 사탄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가? 이상한 인간이 있어도 내가 참고 감수하면 사탄이 벌벌 떨고 도망간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데, 주장 안하고 양보하면 사탄이 무릎 꿇는다. 성도님들이 어떤 현장에서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 드린다. 부부싸움은 이기려고 하지만 양보하면 절대 안 진다. ‘오직 예수’ 이것만 양보 안하고 나머지는 다 양보하라.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임하고 성령충만 해진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갈2:20이다. 이게 안 되니 예배, 말씀이 필요한 것이다.

1)사도바울은 딤편3:8~13에서 중직자들을 선택하는 기준과 삶에 대한 수준, 표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교회 안에서 일꾼들을 뽑아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미국에 말한 침례교에서는 장로를 안 뽑는다. 집사가 장로 역할을 한다. 여자 집사도 있다. 딤편3:8 “이와 같이 집사들도 (1)정중하고(신중하고) (2)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3)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중독) (4)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직업, 욕심)/교회 사역자는 신중해야한다. 영적 상태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도 않는다. 내가 틀리면 바로 바뀌어야하지 않겠는가? 꾀대 없는 것과, 잘못을 인정하

는 것은 다르다. 그 다음으로 중독에 빠지면 사역이 어렵다. 그리고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딤편3:9 (5)“깨끗한 양심(그릇)에 (6)민음의 비밀(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한다. 딤편3:10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행정)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딤편3:11 “여자(여중직자)들도 이와 같이 (7)정중하고 (8)모함하지 아니하며(표준새번역:‘험담하지 아니하며’, 공동번역:‘남을비방하지 아니하며’) (9)절제하며 (10)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체질 자체가 남 이야기 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는 분이 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딤편3:12 “집사들은 (11)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12)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딤편3:13 “집사(장로,안수집사,권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①아름다운 지위(훌륭한 지위)와 ②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공동번역: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더욱 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감독과 집사에게 하는 말에 큰 차이가 없다. 만인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중직자가 되면 자부심, 확신이 생긴다. 직분을 안 받으면 그 상태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직분의 가치를 높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린다.

2) 성도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님들과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 딤편5:17 말씀이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 이니라”

3) 제직들은 교역자들이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잘해야 한다. 딤편5:18 말씀이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샅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이 응답 받아서 어느 교회보다 더 많이 교역자 사례비를 주는 교회가 되도록 응답 받으시길 바란다.

4)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직장생활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딤편6:2 말씀이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 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5)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부자 되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또 부자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사업에 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딤편6:9~10, 17~18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겼도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오늘도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불잡을 CVDIP를 찾아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의 최고의 언약과 목표는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디모데전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키고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복음에 정말로 집중하면 다르게 돼있다. 근데, 그 복음에 집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다. 자칫하면 막연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Vision 이다. 우리들의 영원한 비전은 237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RU를 세운 것이다. 그들이 신학, 교회, 행정, 복음, 전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연합하고 부족하더라도 교회를 살려야겠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계의 교회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겠다.

Dream 이다. 우리들이 만약 24시간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체질화 된 성도를 양육하는 사역에 24시간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꿈이 성취될 것이다.

Image 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허상을 보지 말고 실상을 보아야한다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대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사실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다. 바울사도는 에베소교회의 지금을 보지 않고 미래에 세계를 살릴 에베소교회를 믿고 그 생생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우리도 사도바울처럼 우리나라와 교회와 자녀와 사업에 대한 언약과 미래가 생생하게 보일 때까지 집중하여 기도해야 하겠다.

Practice 실천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당연히 해야 할 것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절대적인 것을 찾아보시길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 이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With,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가되는 Oneness,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Immanuel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